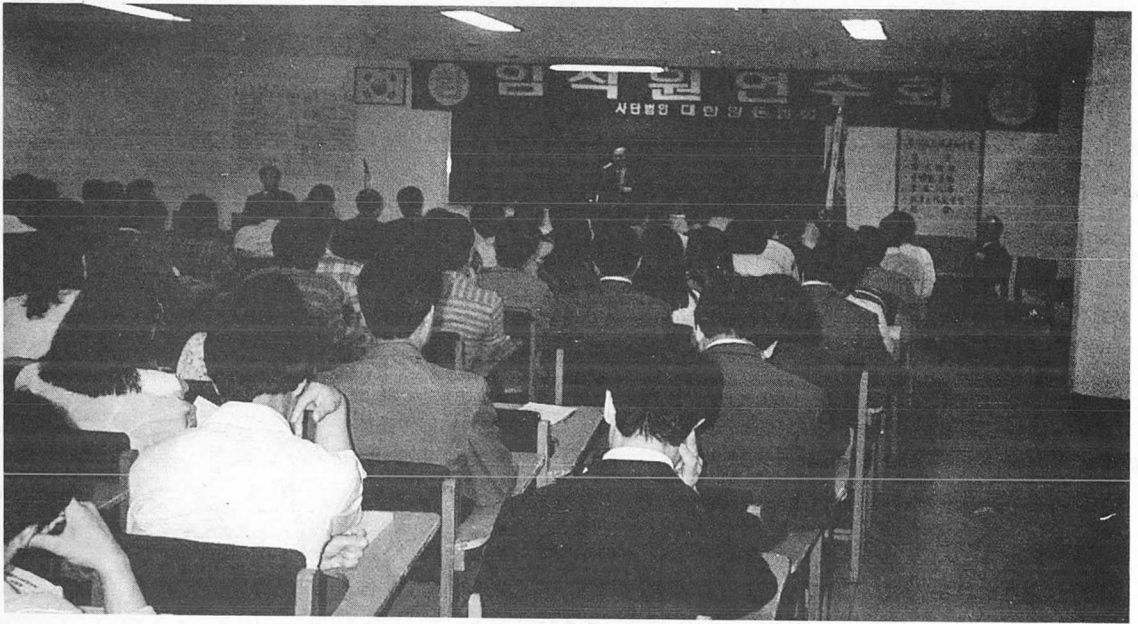


본회, 제10차 임원·지부장 직원연수회 성료

- 특별강의, 임원·지부장연석회의, 양돈인 친선의 밤,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5분스피치 등 다양하게 진행

취재: 곽삼섭 기자



본회는 지난 6월 4일·5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에 소재한 한국산업개발종합경영연수원에서 제10차 임원·지부장 직원연수회를 개최했다.

본회 임원·지부장 직원의 협동력과 주인의식 고취 및 양돈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양돈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임원·지부장·직원 등 1백50

명이 참석하여 양돈산업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특별강의 ▲임원·지부장 연석회의 ▲양돈인 친선의 밤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90년도 협회 사업소개 ▲5분스피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수회 개회식에서 최상백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양

돈산업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연수교육에 참가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연수회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협회 조직활성화는 물론 양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공고히 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부회장은 또, 「정부의 지난 5.28 육가공원료 돼지고기수입 허용 조치는 전국양돈인들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전제하고, 「전국양돈인들이 모인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연수회에서는 ▲'9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전망(KID 백영훈 원장)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한국양돈업의 발전방향(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 ▲2000년대를 향한 양돈인의 자세(동국대 박완일 교수) 등에 대한 특별강의가 있었다.

백영훈 원장은 강의를 통해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국제간 교류가 깊어지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개방화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돈인 스스로 한국형 양돈산업의 경영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장은 또, 「모든 산업의 경영 원칙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 양돈인들은 1차 산업인 양돈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구범 축산국장은 강의를 통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축산업은 농가소득을 지탱해 주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



▲ 동국대 박완일 교수가 「2000년대를 향한 양돈인의 자세」란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

이 없다」고 말하고, 「양돈업을 비롯 양계업은 타 축종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축세 면제,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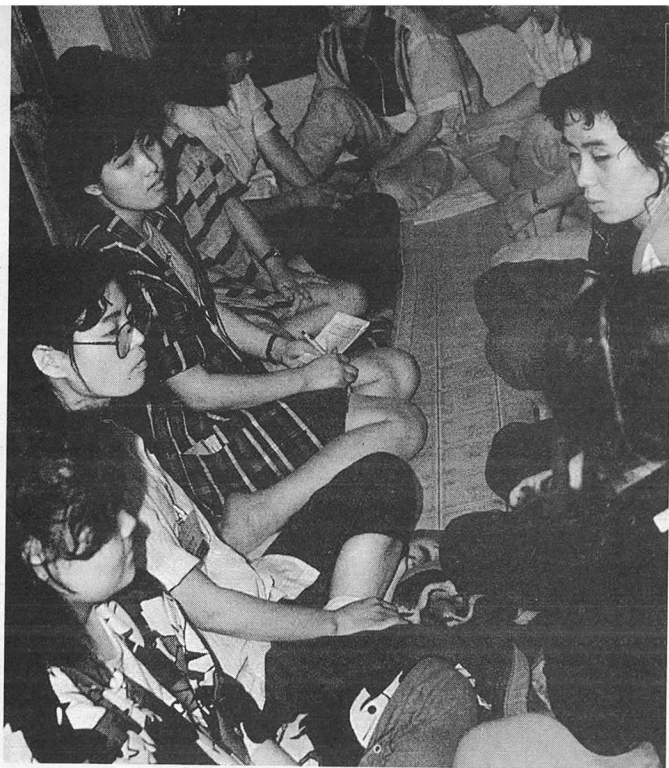
신국장은 또, 「현재 국내 양돈농가 규모는 1백두미만 농가가 95% 이상을 차지해 1농가당 평균 24마리의 돼지사육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지적,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양돈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화와 경영합리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국장은 「양돈업이 심한 가격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전체시장의 5~10% 정도의 물량은 항상 수출·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수급불균형에서 오는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임원·지부장들은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양돈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축산장기발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정부의 돼지가격안정대책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수입허용 배경 ▲자조금제도 추진 방향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 신국장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박완일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정책이 일본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산업발전을 선진



▲지부여성원들이 협회운영부의 경영진 고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다 (분임토의 장면)

외국의 산업을 모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수회 참석자들은 첫날 저녁식사후 7개 분임조로 편성, 각 조별로 조장을 선출한 뒤 최근 양돈업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는 돼지고기수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제1조) ▲자조금제도의 추진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제2조) ▲돼지고기 수출 및 소비촉진방안(제3조)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방안(제4조)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제5조) ▲협회조직의 활성화 방안(제6조) ▲협회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자세(제7조) 등을 집중 토의했다.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현재 우리의 농축산업

은 외국산 농축산물의 범람으로 존속 여부가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육가공원료 돼지고기수입 허용조치는 양돈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부재속에 무분별하게 원료육을 수입하는 육가공업체의 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협회에서 수입원료육 돈육 시장유출의 감시권은 물론 수입물량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수입추천권을 포기하도록 축협중앙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제2조: 정부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금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자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금을 조성, 무임승차가 없이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수익비례원칙에 의해 부과되,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부의 돈육 수출산업육성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

에서는 수출경쟁국인 덴마크나 대만 등과 비교해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즉 수출돈육을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축세 면세, 금융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 또 돈육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도시소비자단체와 직거래할 수 있는 자매결연은 물론, 매년 전국적으로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제4조: 모돈관리에 있어서 유도분만을 이용하여 분만일을 조정, 모돈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또 모돈을 군사시켜 평균 2일정도 발정일을 앞당기고, 시설을 자동화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유전인자의 활용을 위해 냉동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원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군단위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양돈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를 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회원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중앙회에서 도협의회, 지부로 신속성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는 개인 및 소수원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정책적인 문제 등을 단체의 힘을 발휘하여 공동 대



▲ 분임토의 결과발표를 하고있는 하오조 마산지부장

처해야 하기 때문에 전회원들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개인의 노력이 전체양돈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제7조 : 협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사정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회원의 권리의무인 회비 및 홍보분담금을 완납토록 해 협회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 지부업무는 여직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직업성을 키워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이어 분임토의가 끝난 후 「양돈인 친선의 밤」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 임원·지부장과 연수생전원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부패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양돈인 친선의 밤」행사는 1·2부로 나눠 레크레이션 전문가의 최원성씨가 진행했으며, 런센스퀴즈 및 디스코경연과 참석자들의 사랑이여! 등의 합창아래 어우러져 나오는 화



▲ 본회 최상백 부회장은 연수생을 대표한 문승현 서산태안지부장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음조화는 양돈인 스스로의 단합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연수생 전원이 방청한 가운데 임원·지부장연석회의가 열렸다. 전동용회장 주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임원·지부장들은 ▲정부의 육가공원료 돼지고기수입 허용조치에 대한 대응책 ▲자조금법(농발법중 축산업 자조금 관련) 추진대책 등을 협의했다.

연석회의에서 임원·지부장들은 「외국산 농축산물 개방압력으로 위 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5.

28 육가공원료 돼지고기수입 허용조치는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라고 지적, 「협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양돈산업현안비상

대책위원회(위원장 : 이명복)을 소집하여 대응전략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연수일정의 마지막으로 연수생을 대표한 서산태안지부 문승현 지부장의 선창으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돈인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제10차 임원지부장 직원연수과정을 수료하는 연수생 일동은 연수과정중에 쌓은 지식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